

인 사 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두루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의 인재들을 길러낼 ‘보리가람’을 여는 개교식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탄자니아 대통령님과 장관님, 주지사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학교의 주인이 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종정예하의 지혜의 덕화가 증명하는 오늘 이 자리는 너무도 소중하고 향기로운 마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학교건립을 위해 부지를 선뜻 기증해주신 동봉스님과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정성을 모아 주시고, 먼 길이지만 신심으로써 기꺼이 동참해 주신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종단의 소임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의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선대의 조사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희로써 전하고자 일생일대의 구범여행을 떠나오시어 민족의 찬란한 정신문화를 열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후학들은 선대의 혜은에 미력이나마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머나먼 이곳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부처님의 지혜로움을 전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그동안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을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편적인 대승의 지혜와 자비의 인성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거룩한 인연 공덕의 꽃을 피워내는 것 역시 한국불교가 세계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진중한 의미라 할 것입니다.

지난 세기 탄자니아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지울 수 없는 제국주의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분단국가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오랫동안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지와 땀으로 열룩진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20여 년 전부터는 해외구호 활동을 시작하여 이제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세계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만이 바로 국가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

는 확신이 있었기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부처님의 지혜이고 ‘가람’은 사찰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참된 깨달음, 참된 지혜를 실천하는 도량이란 의미로,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연을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한국불교 또한 인류의 공생과 공영을 위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여 모두가 화합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조화롭게 담기고 지혜로움이 넘치는 ‘보리가람’에서 탄자니아 청소년들이 우리가 발원하는 것처럼 희망을 한껏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즐거움은 가족과 이웃, 나아가 탄자니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날들을 열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보리가람의 의미이며, 탄자니아 청소년의 웃음은 대한민국 불자들에게 큰 감동이자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일깨워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인종과 종교, 태어난 국가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인 나의 말과 행위, 인연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구촌 인류의 미래 역시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은 탄자니아의 국민들과 함께 지구촌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보리가람의 인재들이 대승보살로서 세계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연의 큰 매듭을 함께 이어 갑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행복의 기운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9월 5일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